

축 사

통일기원 문화예술제를 청명한 기운과 더불어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석굴암 부처님의 자비롭고 너그러운 미소가 오늘을 증명하기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성품 그대로를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삼국시대에 이곳 경주를 중심으로 통일을 이루었던 신라의 문화는 민족의 다양한 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진정한 통일의 의미를 담아 지금껏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대의 각별한 마음은 마음의 통일, 사람의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인류사의 큰 모범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생의 정신을 오늘날 실천하겠다는 통일기원 문화예술제는 많은 대중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고 현대인의 삶에서 생생하게 살려내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나아가 미래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본보기로서, 광복 70년이면서 동시에 분단 70년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견어내는 국민적 노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시대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살아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문화라도 대중화하고 활성화하지 않으면 아무런 가치나 효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문화속에서 국민이 가장 염원하는 것, 나라에 가장 필요한 가치를 충족해 내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면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담아내고자 한 소중한 노력은 현대인에게 감동을 전달하기에 충분하고, 마음의 통일과 나아가 민족의 화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는 훌륭한 정신과 문화를 물려주신 선대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후손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통일을 기원하고 문화예술의 향상이 조화로운 오늘의 축제에 깊은 관심

을 가져주신 홍용표 통일부 장관님과 김관용 도지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최양식 경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중한 정성으로 함께하신 이웃종교 지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며, 불국사 회주 성타스님과 관장 종상스님, 그리고 주지 종우스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일기원 문화예술제를 통하여 원력을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마음의 통일을 이루고, 나아가 국민 모두가 그토록 염원하는 조국통일에 한 걸음 크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의 정성과 공덕이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향기롭게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10월 17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